

제 276호 · 2014년 10월 1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 정책·사업동향

1. 덴마크선사 머스크사, 2M 결성으로 연간 3억 5천만 달러 절감 예상
2. 인도, 주요 항만·도로·철도인프라 개선 예정
3. CEVA, 베트남 물류사업 확대
4. 일본, 미얀마 컨테이너 철송사업 지원

물류 시장동향

1. 캄보디아, 물류 T/F(task force) 구성
2. 필라델피아 항만공사, 항만개발사업자 모색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덴마크선사 머스크사, 2M 결성으로 연간 3억 5천만 달러 절감 예상

- 글로벌 1위 선사인 머스크사는 스위스 선사인 MSC사와의 2M 결성으로 상당한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와 중국 당국의 2M 협업 승인에 달려있다고 강조함
- 머스크 그룹은 9월 24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자본시장의 날(Capital Market Day)' 행사에서 배포한 문서에서 2M 협업이 승인되면 머스크사는 연간 약 3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날 행사에서 배포된 문서에는 머스크사의 신조선 발주 예상 규모도 포함되어 있는데,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머스크사는 연평균 30억 달러를 신조선 구매에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함
 - 머스크사의 2013년 신조선 투자비는 16억 달러로 과거보다 줄었지만, 지난 10년간(2003~2013년)의 연평균 신조선 구매액은 23억 달러 수준임
- 머스크사가 발주 중인 선박규모(선복량)는 현재의 시장 성장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신규로 42만5천 TEU 선복량을 추가 확보·인도할 예정이라고 '자본시장의 날' 행사에서 머스크 그룹 최고 경영자인 소렌 스코우(Soren Skou)가 언급함
 - 신규로 발주·인도예정인 42만 5천 TEU급 선복량은 1만8천 TEU급(Triple-E 클래스)의 경우 23척 이상, 1만4천 TEU급 30척과 같은 규모임
 - 이번 신조 발주에는 1만TEU급 이하 선박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임
- 추가로 발주되는 신규 선박은 머스크사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최대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1위 선사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토록 할 것임
 - 머스크사는 현재 보유한 컨테이너 선박 중 대형선이 아닌 여분의 소형 컨테이너 선박을 대선할 것으로 알려짐

자료 : shippingwatch.com, 2014.9.24 / www.joc.com, 2014.9.24.

이언경 전문연구원 (☎ 02-2105-2919, eklee@kmi.re.kr)

□ 인도, 주요 항만·도로·철도인프라 개선 예정

- 인도는 인프라 개선을 통해 12개 주요 항만 등의 산업시설과 내륙수로를 철도와 연결할 예정임
- 인도 교통부 Nitin Gadkari 장관은 지난 9월 24일 인도 산업연맹 주최 행사에서 인도 교통 인프라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음
- 새로운 인프라 개선 계획은 신규 철도 노선 개설 및 각 지역을 연결하는 터널과 내륙수로를 개발하는 것임
- 인도의 빈약한 철도 인프라는 Jawaharlal Nehru항이나 Nhava Sheva항 같은 인도 대형 항만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왔음
- 인도 대형항만의 혼잡은 다른 항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Paradip항은 과거 우천과 수입 급등으로 항만의 수용력을 초과해 무려 27척의 선박이 선석배정을 기다리기도 했음
- Marine Link에 따르면 2013~2014년 회계연도의 인도 전체 화물 처리실적은 4.3%가 증가한 9억 7,600만 톤에 이르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인도 정부가 소유한 주요 항만들은 지속적으로 민간 항만에게 시장 점유율을 잃어왔음
- 정부소유 주요 항만의 시장점유율은 적정 항만 수심 미확보 등의 이유로 1995년의 91%에서 최근에는 57%로 낮아졌음
- 인도의 새 총리인 Narendra Modi는 부임 후 4개월 만에 인도 항만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내륙수로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음
- Nhava Sheva항 개선을 위해 400억 루피(미화 6억 5,45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뭄바이 인근의 다른 항만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인도정부는 항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로, 교량도 개선할 계획임
- 인도 정부는 그동안 항만 민영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현재는 관심이 줄어든 상태임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리포트 2013-2014'에 따르면 인도의 항만 인프라 품질은 전체 148개국 중 70위 수준이며, 도로 품질은 84위를 기록했음
- Port Technology에 따르면 인도 정부관계자들은 민영화가 항만에 대한 책임감 부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인도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지난 9월 19일에 중국과 무역 및 경제협력 계획을 체결했음
- 2013년 양자간 무역액은 총 6,640만 달러지만, 무역적자는 350만 달러로 추정됨
- 2103년 기준 인도의 GDP는 약 1조 8,770억 달러로 세계 경제의 3%를 차지하고 있는데, Gadkari 장관은 인도의 내륙수로 개발이 GDP성장에 최소 2% 이상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자료 : www.joc.com, 2014.9.24.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CEVA, 베트남 물류사업 확대

- 글로벌 물류기업인 CEVA Logistics가 베트남 카우지아이 지구(Cau Giay District) 하노이(Hanoi) 지역에 신규 지점을 개설함으로써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음
- CEVA의 하노이 신규 지점은 항공화물, 해상화물, 계약물류, 보관창고업, 역내 운송, 유통 및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호치민에 이은 하노이 지점 개설은 CEVA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에서의 CEVA 입지 강화 및 사업 확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임
- CEVA 베트남 지사의 Nelson Chow 상무이사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CEVA의 성장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대되고 기쁘다”고 말하고, “CEVA의 하노이 지점은 베트남과 인도차이나의 운송 물류 및 항공물류 시장의 선두기업이며, CEVA의 현지 파트너인 ITL Group과 공동으로 설립되었다”고 언급함
 - 또한 CEVA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 및 공급망 기능과 ITL Group의 현지 지식과 경험을 통해 베트남 물류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베트남 북부지역은 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운영 및 제조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물류 및 공급망 서비스 지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하노이 지역은 신규 고속도로와 신공항 및 항만과 연결되는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하노이 지역의 운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베트남 북부 지역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임
- CEVA 동아시아 지부 Troy Shortell 부사장은 “베트남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아태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이라고 언급함
 - 또한 아시아 역내 무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CEVA는 중국과 동남 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베트남의 이상적인 지정학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아시아 역내 교역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임

자료 : contractlogistics.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4.9.24.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 일본, 미얀마 컨테이너 철송사업 지원

- 일본 국토교통성(ML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은 미얀마 최초의 해륙 컨테이너 철도운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이 시범사업의 운행구간은 양곤항(port of Yangon)에서부터 미얀마 제 2의 도시 만달레이(Mandalay)까지이며 미얀마 정부의 협력 하에 미얀마 철도(Myanmar Railways)회사의 철로를 이용할 것임
 - 양곤에 하역된 컨테이너는 곧바로 철도 차량에 적재되어 2014년 9월 25일 양곤항을 떠나 그 다음 날 만달레이에 도착하여 트럭킹으로 수하인에게 배송됨
 - 복귀시 화주의 컨테이너는 10월 2일 만달레이를 출발하여 그 다음날 양곤에 도착하게 됨

< 미얀마 양곤 및 만달레이 위치 >



자료 : www.gscintell.com, 2014.9.29 검색.

- 열차는 15개 차량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차량은 20 TEU 컨테이너 두 개 또는 40 TEU 컨테이너 한 개를 실을 수 있음
 - 화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진동 측정 장치와 온도 및 습도 조절 장치가 각각의 차량에 2개씩 부착됨
- 미얀마에서는 도로운송이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도로시설, 교통정체, 고비용 및 과적이 만성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효율적인 철도운송시스템 구축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MLT는 2014회계연도('14.4~'15.3) 아시아 지역의 물류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얀마에서의

시범 운송 프로세스 및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철로운송의 효율성, 정시성 및 안전성뿐만 아니라 화주와의 협업 활동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임

자료 : www.jiffa.or.jp, 2014.9.22.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물류시장동향

□ 캄보디아, 물류 T/F(task force) 구성

- 캄보디아 물류 T/F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국가의 전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물류 장애요소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열악한 물류로 인해 캄보디아 수출 비용은 태국, 베트남에 비해 최소 30% 높으며,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상품 공급은 어려운 상태임
 - 세계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 업체들은 수출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 및 ASEAN과 연계된 파트너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세관 및 운송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캄보디아는 2014년 세계은행 물류 성과 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가 2010년보다 상승함
 - 세계은행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 물류 T/F'를 구성하여 물류 사업 및 교통 네트워크를 개선·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캄보디아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계은행과 캄보디아정부(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정부 법령 및 하위 법령, 비관세, 수출입 승인 등과 관련하여 120개 이상의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4년 전 6일정도 걸렸던 세관통과가 평균 1.4일로 줄어드는 성과를 냄

자료 : www.joc.com, 20014.9.4.

김은미 연구원 (☎ 02-2105-2835, usea1004@kmi.re.kr)

□ 필라델피아 항만공사, 항만개발사업자 모색 중

- 필라델피아 항만공사(PRPA, The Philadelphia Regional Port Authority)는 사우스 필라델피아 소재 2백 에이커(약 24만평)부지 개발사업 참가의향서(EOI, Expression of Interest) 모집을 공고함
 - EOI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제출되어야하며,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뿐만 아니라 에너지회사, 자동차 제조회사, 해운회사, 그리고 투자회사도 제출 가능함
 - 남항(South Port)으로 잘 알려진 이 지역은, Navy Yard의 동쪽 끝, 그리고 델라웨어(Delaware) 강의 Walt Whitman 교량의 남쪽에 위치함
- 현재 일부 업체가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PRPA측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업에 대한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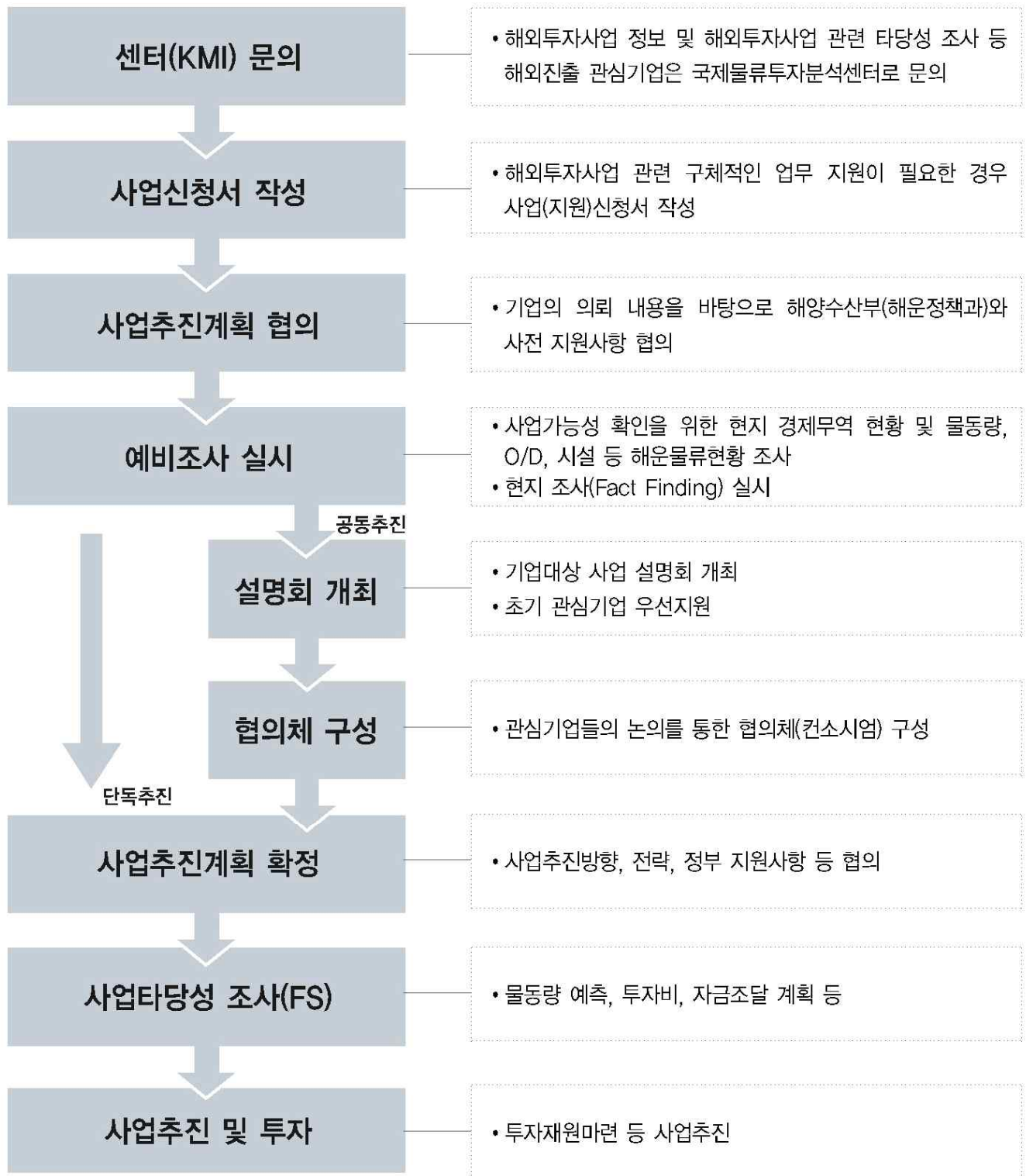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Delaware River Stevedores(DRS)에 따르면 2010년에 남항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현대상선이 철수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이 사업은 중지된 상태임
- 현재 두 개의 터미널 운영사¹⁾가 개발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Philadelphia Energy Solution사는 에너지 포트 개발에 관심을 표명함

자료 : www.container-mag.com, 2014.9.18.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1) Murphy Marine Service, Holt Logistics Corporation.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